

전북 디자인 산업 가능성 ‘한눈에’

도 디자인데이 11일까지... 우수성과 67점 등 전시

전북의 디자인 산업을 이끌어갈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가능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

(제)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는 '제7회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데이'를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전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 행사로, 산업과 교육, 창작이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디자인데이는 지역 기업들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성과와 도내 대학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창의적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통합 전시 행사로 꾸며졌다. 전북디자인센터가 수행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우수성과 67점을 비롯해 전북대·원광대·전주

대·군산대·여원예대 등 5개 대학에서 출품한 학생 작품 30점이 전시된다.

제품, 포장, 브랜드,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결과물이 전시장 곳곳을 채우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미래 디자인 특별전'으로 마련된 LG의 미래형 이동공간 '옴니팍(OMNIPAD)' 전시는 자율주행 기술과 생활환경 디자인이 결합된 새로운 이동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미래 디자인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일상과 기술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전시로 기대를 모은다.

5일 오후 2시, 전북디자인센터 1층 아이디존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디자인기업, 지역 기업, 대학 관계자, 유



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 디자인 산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개막식 주요 행사로는 '품평회 수상작 시상식'이 열렸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지역 디자인인의 자기 진작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사전에 품평회를 열어 올해를 빛낸 디자인 작품 17점을 선정했으며, 대학 우수작품 15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유종길 전북디자인센터장은 "전북디자인데이는 기업과 대학, 전문가, 그리고 도민이 함께 전북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라며 "올해는 실제 제품화까지 이어진 성과와 미래지향적 실험작이 함께 전시돼 지역 디자인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의 대표 정기간행물인 월간 '그린매거진'이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부문 '한국사보협회장상'과 전지사보(웹진) 부문 '브랜드마케팅협회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농업·농촌 매거진... 위상 입증

농진청, 월간 '그린매거진', 커뮤니케이션대상 2개 부문 수상

농촌진흥청의 대표 정기간행물인 월간 '그린매거진'이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부문 '한국사보협회장상'과 전지사보(웹진) 부문 '브랜드마케팅협회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공공 소통 매체로서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공공·민간의 홍보·소통 제재물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이번 성과는 '그린매거진'이 국민의 소통을 위한 정보 전달력, 콘텐츠 구성, 디자인 완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올해 발간 230호를 넘긴 '그린매거진'은 농업·농촌의 주요 이슈 연구 성과, 최신 트렌드를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농촌진흥청의 대표 매거진이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육종 △치유농업 △푸드테크 △청년농업 △농업 안전 등 핵심 정책의 제도를 생활·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쉽고 흥미롭게 소개했다. 또한 △반응형 웹진 강화 △전자책 플랫폼 서비스 확대 △독자 참여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과 확산력을 크게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1만 부의 '그린매거진'을 공공도서관, 학교, 평생학습관, 병원, 금융기관, 개인 구독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1만 2천 명에 달하는 웹진 정기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오상근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 전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연말을 맞아 전북 지역의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진흥원은 임직원들과 함께 추진한 '2025 임직원 기부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성금 300만 원을 지난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에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부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청년에게 의료비와 생활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전망이다.

성금 전달식에서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인공지능으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150개국 언어 영상 제작 가능한 'NPS AI 스튜디오' 전면 지원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자체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플랫폼 'NPS AI 스튜디오'를 활용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홍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해외 고객용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면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라며 "NPS AI 스튜디오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겪어온 글로벌 마케팅의 장벽을 혁신

기술로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해 전북 지역 3개 기업에 시범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전국 14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디지털 활용 기술과 경험을 민간에 개방해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NPS AI 스튜디오'는 공단이 홍보영상, 제도 안내,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핵심 플랫폼이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브레이크에 이어야의 영상 제작 기술과 다국어 발화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전문 편집 능력이 없어도 고품질의 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워드, 파워포인트, PDF 파일을 등록하기만 하면 150개국 언어로 자동 번역된 원고와 디지털 휴먼이 등장하는 영상이 손쉽게 생성된다.

중소기업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단은 제작 지침서를 배포하고, 국제협력센터 소속 외국어 전문가의 감수도 제공한다. 단순 제작 지원을 넘어,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 시장에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까지 돕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NPS AI 스튜디오는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공공 기반 디지털 서비스"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 부문 수상

2020년부터 예술단 운영... 87명 일자리 창출·사회참여 확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으며, 공사는 4일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의 '장애인 권리선언'과 정부의 '장애인권향장'

정신을 이어받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1999년부터 수여되고 있다. 올해는 인권실천, 국회의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전기안전공사는 2020년 공공기관 최초로 발달장애인 극단 '유니버설 안전 예술단'을 창단해 영유아 장애인들



대상으로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뮤지컬 공연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오상근 기자

회원 화합과 성과 공유, 내년 도약 다짐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2025년 송년의 밤' 성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4일,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2025년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 간 화합을 강화하고 연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을 비롯해 지회 임원 및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창치 회장 및 주요 내빈의 인사말 △모범 여성기업인 시상 △회원 배가 공로 포상 △연간 행사 우수 참석자 시상 △단체사진 촬영 △네트워킹 리셉션 순으로 진행되며 풍성한 저녁을 이끌었다.

특히 올해 송년 행사에서는 '2026년 목표 및 좌우명 캘리그래피'를 주제로



한 제4차 비즈니스 레벨업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도내 여성 기업인들이 새해 목표와 다짐을 직접 글로 쓰며 마음을 다지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비즈니스 레벨업 프로그램은 실질적 동기부여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전북지역 여성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오상근 기자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